

## News

### 14일(오늘) '총재 없는' 4월 한은 금통위...기준금리 인상·동결 전망 '팽팽'

한국금융신문

14일 오늘 열리는 4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및 동결 전망 팽팽하게 맞설 예정... 사상 초유의 총재 공석 금통위라는 점에서 금리 동결이라는 의견이 우세  
다만 높은 물가를 감안할 때 금리인상도 설득력 높아... 미국 연준이 5월 FOMC에서 금리를 한번에 0.5%p 올리는 빅스텝 단행 가능성도 고려 요인으로 꼽혀...

### 3월 은행 가계대출 전월비 1조원 ↓ ...사상 첫 4개월 연속 감소

뉴스1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 1,059조원으로 전월비 1조원 감소... 작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감소 중... 주담대 잔액은 전월비 2조 1,000억원 증가  
신용대출 포함한 가계 기타대출 잔액은 273조원으로 전월비 3조 1,000억원 감소... 기업대출 잔액은 1,093조 9,000억원으로 전월비 8조 6,000억원 증가

### 금융위, 마이데이터 허가시 단순 데이터 중개 사업 제한

조선비즈

금융위, 올해부터 금융 관련 데이터를 단순 중개 및 매매만 하는 사업자는 금융위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 받지 못하는 것으로 허가 심사 방향 발표  
현재까지 총 56개사 분허가, 45개 서비스 출시... 여전히 소규모 핀테크 기업 및 금융사 등의 추가 허가신청 수요 남아있는 상황... 매 분기말 허가신청 일괄접수해 심사 진행할 것

### 시중은행, 해외서도 잘 나갔네

한국경제

국내 은행 해외 점포 경영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은행의 해외 점포 204곳으로 전년 말 대비 7곳 증가... 아시아 지역 141곳으로 전체의 69.1%에 달해...  
해외 점포들이 거둔 당기순이익은 11억 6,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2.1% 급증... 금리 상승 등 이자이익이 6억 4,400만 달러 증가한데 따른 것

### 금융위, 카카오통보보험 본인가...상반기 법인 출범

조선비즈

금융위, 13일 제7차 정례회의 개최해 카카오통보의 보험업 영위 허가 결정...동사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카카오페이 60%, 카카오 40% 출자  
초기 상품 라인업은 소액보험 중심일 것... 금융위,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모두 충족 판단...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 기대

###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파이낸셜뉴스

금융위,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올 2월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  
제시된 유상증자 규모가 부족해 후순위채 출자전환이 불가능한 상황...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는 예금보험공사가 맡아... 예보는 실사 후 최소비용원칙 따른다는 입장

### '대체거래소' 설립 현실화...업계 움직임 가속화

대한금융신문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국내 최초 제2 증권거래소 탄생 현실화 전망... ATS 설립 가속화 중... 금감원, 이르면 내달 ATS 인가 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준비 중  
TF에 금융위와 자본시장연구원이 함께해... 현재 인가를 준비중인 곳은 금투협과 미래에셋,삼성,신한,NH,KB,키움,한투 등 7개 증권사로 구성된 ATS설립위원회와 피엑스엑스 2곳

### 최대 실적에 배당금 늘린 거래소...웃음짓는 증권사

비즈니스위치

한국거래소, 올해 주당배당금 5,000원으로 결정... 작년 주당배당금 3,600원보다 1,400원 증가한 금액  
거래소 지분 보유 증권사들은 전년보다 174억원 증가한 861억원 배당금 지급받을 예정... KB증권이 가장 많이 지급받아... 총 64억원의 배당금 예상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